



처음에는 벽에 흠뿌려진 핏자국을 만들고 싶었다. 그런데 만들다보니까 색깔만 바꾸고 중력을 없게 하면 은하 같  
이 보일 것 같았다. 그래서 그렇게 해보았다. 그리고 배경에 별을 뿌렸다. 자연은 신비롭다. 진짜처럼 보이고 싶어  
서 일부러 구린 해상도의 디지털 이미지인 것처럼 꾸몄다. 별을 만개 이상 그리다보니 로딩이 느리다는 문제가 생  
겼다.

실제 은하의 모양을 보면 각 종류의 패턴이 어떤 힘을 통해 생성되었을지를 짐작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. 나중  
에 시간이 된다면 그 힘을 재현해서 진짜 코드만으로 나선형은하 등 다양한 종류의 은하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.



